

전남, 역도에서 '금맥' 캐다

선철성 3관왕 등 금 5개 '번쩍' 광주양궁 김란숙·김홍규 4관왕



광주가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 하루를 앞두고 종합 3위 달성을 위한 힘찬 레이스를 펼쳤고, 전남은 역도에서 금맥을 캐며 하위 탈출에 힘을 쏟았다.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 은메달리스트 김란숙은 대회 3일째인 8일 광주시 서구 영주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 리커브개인종합과 리커브 30m에서 금과녁을 명중시켜 대회 4관왕에 올랐다. 김홍규도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종합과 50m에서 역시 금메달을 획득해 4관왕의 금자탑을 쌓았다.

김하은은 육상 여 400m(T12)에서 금빛 질주를 펼쳐 3관왕에 올랐다. 탁구에서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 탁구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조재관과 김공룡이 각각 남자단식 TT1, TT2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영건도 남자 단식 TT3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문병남은 수영 남자 200m(SM9)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고, 현병일과 정미애는 각각 불린 남자 TPB9와 여자 TPB9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소영(여 불린), 박선주(남 불린), 이명구(남 양궁), 박영우(남 역도) 등은 은메달을 따냈고, 오만석(남 역도)이 동메달 3개, 김동훈(남 역도)과 박영우(남 역도)는 각각 동메달 2개씩을 획득했다.

신석섭(남 불린), 이명구(남 양궁), 노승현(남 수영), 오인선(남 육상)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8일 역도에서 금5개, 은8개, 동3개를 따내는 괴력을 발휘하며 순위상승을 위한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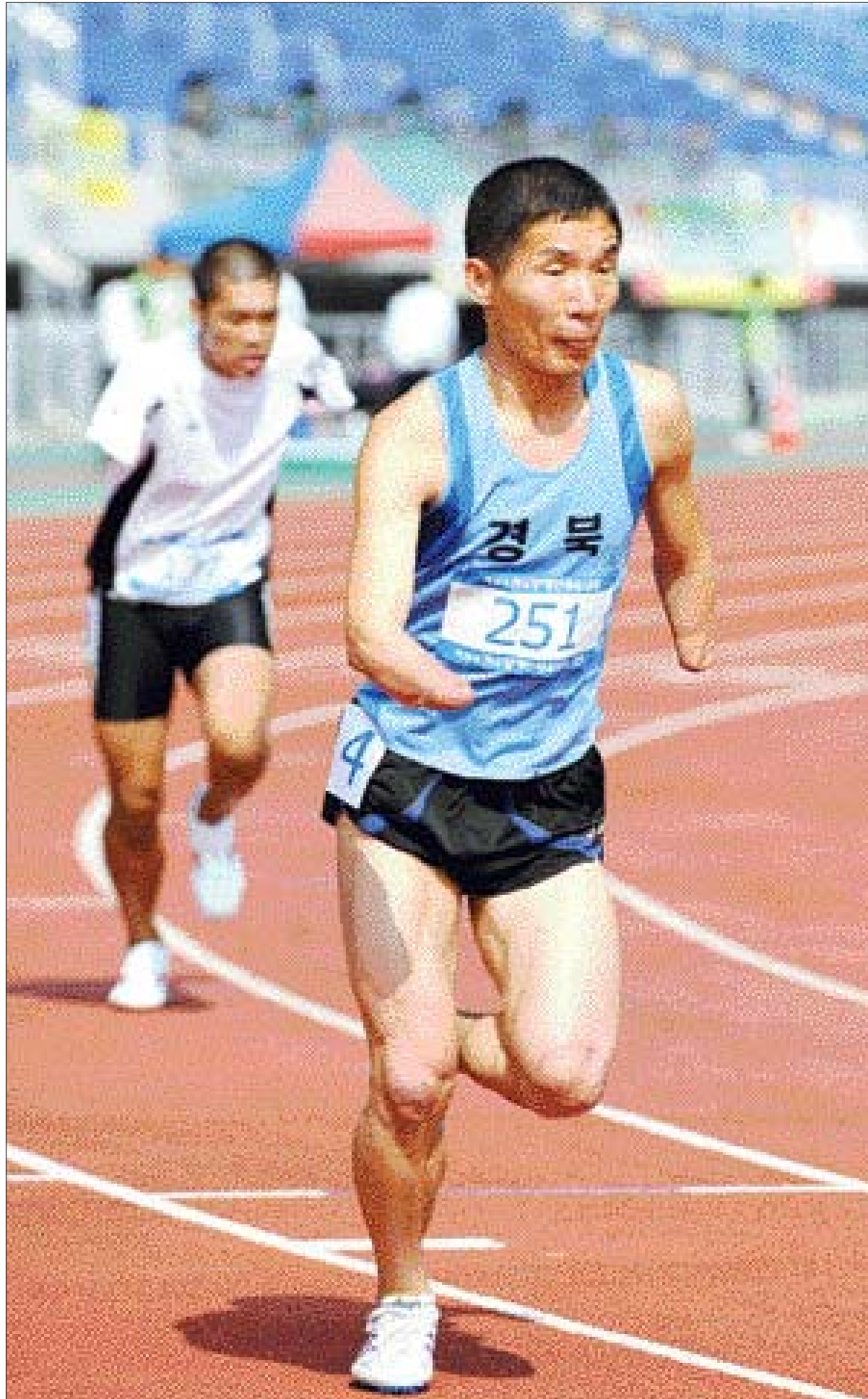
선철성은 이날 조산대에서 열린 역도 남자 74kg이하 파워프리트와 스쿼트, 52kg이하 데드리프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다. 김미선은 역도 여자 75kg이하 벤치프레스 종합오픈, 파워리프팅 오픈에서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광배는 수영 남자 100m(S11)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고, 손옥준은 보치아 혼성BC2 개인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금희는 역도 여자 52kg이하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노경수는 67.5kg이하 파워리프팅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손안순은 역도 여자 67.5kg이하에서 역시 은메달 3개를 따냈고, 김유나·박영은 덴스스포츠 혼성 라틴 오픈 롬바오픈에서 은빛 연기를 펼쳤다. 김삼순은 수영 여자 100m 자유형S11에서 은메달을 보냈다.

김진옥은 역도 남자 60kg이하에서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으며 김성희(여 육상), 유원종(보치아 혼성), 서영준(보치아 혼성), 김진성(남 탁구), 서수연(여 탁구)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장애인 여자 수영의 '얼짱' 김지은(25·아래나)과 육상 남자 '간판' 홍석만(33·제주도 장애인체육회)은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400m T45경기에서 경북의 김영갑 선수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전국체전 D-1

- 친환경 녹색체전·인정체전 다짐

불꽃놀이 대신 물 쇼 경기장 주변 숲 조성

2008 전국체육대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러진다.

전남도는 이번 체전을 녹색의 땅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 체전으로 치른다. 개·폐회식에서는 화학 냄새와 공해를 유발하는 축포, 불꽃놀이를 과감히 폐지해 물기둥으로 역동성을 연출하고, 행사

해 이산화탄소가 감축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대기실 등 공기 정화

대회기간 차량 2부제 시행

개회식 관람객에 떡 제공

시도 선수엔 특산물 선물

경기장 주변은 탄소저감 수준인 잣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었으며 개·폐회식이 열리는 여수 진남경기장에서는 빗산을 상징하는 얼음팽이가 녹아 섬들이 잠기는 퍼포먼스 연출로 기후 온난화로 위협받는 지구의 모습을 표현한다.

또 차량 2부제 시행, 대중교통 무료 운행,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강화 등을 통

해 경기장 선수대기실 및 운영 사무실 100개소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황금작을 공기정화, 컨디션 조절 기능이 탁월한 편백나무, 대나무 숲을 활용한 피톤치드방을 운영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체전 기간에는 일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꽃담, 꽃길, 야생화거리 등 친환경 거리를 조성해 선수단과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사격장 클럽하우스는 목초 한옥과 수목 울타리로 조성했으며 신설 주차장 노면을 잔디블록으로 시공했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을 실시하는 등 전통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경기장 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개회식 관람객에게는 양과 음료, 떡 등을 제공하고 입원·선수단에게는 친환경 농수산물 기념품과 선물을 제공한다.

선수단 식단은 녹색의 땅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로 구성해 건강 증진 및 경기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국 첫 여성공무원 축구팀' 강진군청



전국체전 '처녀 출전' "전국대회 첫 골 목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으로 구성, 화제를 모았던 강진군 여성 축구단(사진)이 전국체전에 처녀 출전한다.

강진군은 8일 "강진군청 여성 축구단이 제89회 전국체전 전남도 일반부 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여성축구단은 올해 경남 합천에서 개최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기량과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전국체전에 전남도 대표로 선발됐다.

강진군청 여성 축구단은 국내의 대표적인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아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는 지역의 명성에 부응하고 축구 인구 저변을 넓히고자 지난 2005년 12월 출범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 여직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은 오는 12일 충남 천안의 일화 천마실업팀과 광양 중동 경기장에서 첫 경기를 갖는다.

상대팀이 전문 실업팀인 만큼 힘든 경기

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결" 득점을 목표로 후회없는 경기를 치를 생각이다. 이번 체전에 출전하는 11개팀 가운데 동호회 성격을 가진 팀은 강진군청 여성축구단이 유일하다.

축구단은 이번 체전을 대비해 지난 8월부터 휴일도 잊은 채 매주 2차례 이상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올 초 실업팀인 현대중공업과 맞붙어 5대0으로 대패하는 등 그동안 4차례의 경기에서 단 한골도 넣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에는 꼭 풀 계획이다.

선수 가운데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부녀로 직장생활과 가정살림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기량을 쌓았다. 축구단 백경자(41·무주유치팀)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전해 군과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젠 보디빌딩에 도전"

■ 오늘의 히어로

男 역도 3관왕 선철성



"열심히 운동해서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에서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8일 조산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 남자 74kg이하·52kg이하에서 3관왕에 오른 선철성(35·지적장애 2급)은 "주변의 도움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 우승의 기쁨을 주변분들에게 돌렸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우승 소감을 노경수 전남장애인체육회 기획팀장의 도움과 필담을 통해 전달했다.

선철성은 31세 때 퀵서비스회사를 다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말을 못하고 손에 힘을 모을 수 없게 되는 지적장애를 얻었다. 정상인이었던 그는 신체적 장애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이혼과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평소 좋아했

던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체전에서 역도 78kg이하에서 무려 4관왕의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체급을 내려 타 시도 선수를

들보다 한 차원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3관왕에 올랐다. 목포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는 하루 4시간 30분정도를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꿈은 일반 보디빌딩 선수들과 겨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수들 '손·발 역할' 특특

광주 장애인 무료차량봉사대

8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월드컵경기장 서문을 통해 택시 한 대가 들어왔다.

주차장에 멈춘 택시에서 박용구(57) 장애인 무료차량봉사대 회장이 내려 조수석에 앉은 지적장애인 홍재모씨를 부축해 휠체어에 태운 후 경기장으로 안내했다.<사진>

이처럼 이번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무료차량봉사대'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광주의 훈훈한 인심과 정을 전하고 있다.

이민성 회원도 울산체육회 소속 육상선수를 내려주고 또 다른 선수를 픽업하기 위해 종중걸음을 친다. 인천광역시 선수단에서는 선수가 신발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 숙소에서 신발을 공수해주기도 한다.

무료차량봉사대는 이번 체전기간동안 매일 177대의 택시와 2대의 리프트카를 운영해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며 선수들의 이동을 돕고 민원까지 해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989년 발족돼 15년째 장애인을 위



한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박용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평상시에는 중증 장애 장애인 민원업무에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예인들이 병원, 관공서, 은행, 복지관, 터미널, 역 등을 오가며 용무를 볼 때 무료로 발이 되어주고 있다.

박용구 회장은 "이번 체전에 참가한 임원과 선수단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셔, 광주의 훈훈한 정을 느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